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투자전략 | 2026.04.10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Weekly

Analyst 신얼 | 투자전략 02-3779-3184, e.shin @sangsanginib.com

Analyst 김경태 | 글로벌 전략/디지털자산 02-3779-3427, kt.kim@sangsanginib.com

Analyst 최예찬 | 경제/원자재/외환 02-3779-3519, yc.choi@sangsanginib.com

RA 강혜성 02-3779-3475, hs.kang@sangsanginib.com

상상인증권

CONTENTS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Summary 3

1. 경제 6

2. 주식 8

3. 채권 19

4. 원자재 20

5. 부동산 22

Summary

주간 자산시장 동향 & 체크포인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전쟁 국면 속 유념해야 할 투자전략

4월 2주차 리스크 온 단, 제한적 수준

4월 2주차 글로벌 금융 및 자산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 소식에 일제히 반등하며, 리스크 온에 부합한 흐름을 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립이 이어진 주초반까지는 불안했으나, 타격 예정 수시간 전 파키스탄의 중재 하에 휴전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시장의 투자 심리는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었다. 투심의 정상화는 결국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달려있고, 이와는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원활한 물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휴전에도 불구하고 일일 10~15척의 통과 제한 소식 등이 나오고 있고, 이에 트럼프의 분노 표출 등은 종전까지 가시밭길을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흥국 증시가 이끈 주식 수익률 급등

vs. 미지근한 채권시장

투심의 회복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는 주간 기준 3.87% 상승하면서 월간 수익률을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간 중동전쟁에 취약했던 신흥국 증시는 6.08% 급등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다. 가파른 하락에 대한 되돌림 성격의 반등이기에 추세화 확실성은 아직 미약하나, 숨고르기에는 충분한 주간이었다. 채권시장 역시 수익률 상승 전환할 수 있었다. 물가의 상방 압력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극도로 취약했던 국채 금리의 상승 흐름은 휴전 소식에 일제히 방향을 전환했다. 단, 증시 대비 채권시장의 휴전에 대한 낙관론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이미 올라버린 공급측 물가 요인과 더불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투심 일부 회복에 의한 원자재 가격 되돌림 흐름

투심의 정상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만큼 투심의 일부 회복은 귀금속 시장에서도 분명 반영됐다. 1월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소식부터 위축된 유동성 공급 우려 등이 금 가격의 급등 이후 가파른 하락을 견인했다. 중동 전쟁은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는 실질 수익률 하향으로 이어지는 금 등 귀금속 밸류에 영향을 미쳤다. 투심의 정상화가 추세적으로 진행될지는 휴전과 종전 논의와 진행 상황에 의존적으로 움직일 것인데, 결과적으로 전쟁의 장기화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은 향후 귀금속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 반면,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 노출 되어 있고, 근월물과 원월물의 스프레드 차이, 브렌트유와 WTI의 가격 차이 확대 및 축소 등 아직 불확실성이 높기에 급등락은 반복적으로 연출될 수 있겠다.

대외 민감도 높은 국가 통화의 절상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 인덱스의 하향 조정이 타 주요 통화의 절상으로 전개되는 일반적 로직에 의한 움직임을 확인했다. 달러 인덱스는 98~99pt 레벨로 하향 되면서 전주 대비 1.2%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470~1,480원 레벨로 내려왔고 주간 2.1% 절상됐다. 한국과 유사하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호주 달러 역시 2.6% 이상 절상되며 그간 절하 폭이 큰 통화의 되돌림이 특징적이었다. 다만, 미 국채 금리 레벨의 하향 조정 폭이 제한적인만큼 달러 인덱스의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았다. 미 국채 등 채권 대비 미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신뢰도가 높기에 달러 인덱스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겠다.

미국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 예정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 논란 격화 지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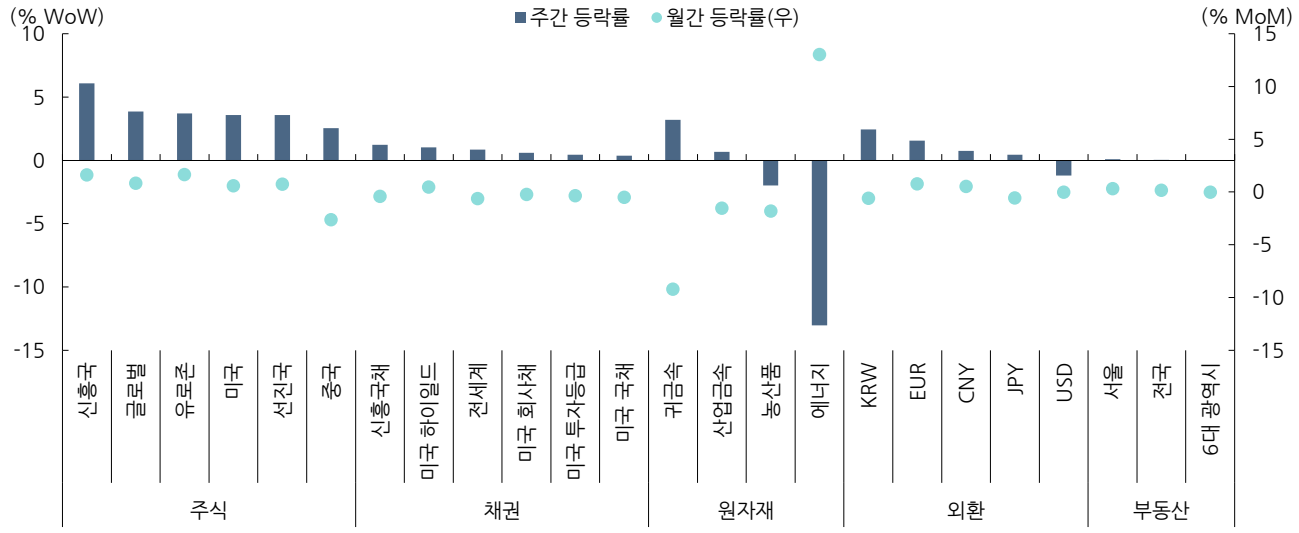
4월 3주차에는 미국의 수출입물가와 생산자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의 3월 PPI는 관세 정책의 이연된 파급 효과가 발현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전쟁발 cost-push inflation 까지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다. 시장의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기에 이를 확인하는 물가 지표 발표가 이어진다면, 연준의 금리 정책 경로에서 양방향에 대한 논의가 보다 뜨거워질 흐름이 연출될 수 있겠다. 한편, 미 의회 상원에서는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취소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파월 체제의 연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동 전쟁에 대한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파월 입장은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에 이 또한 금융시장에는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4월 3주차 전략

AI 밸류 체인에 대한 관전 포인트 확인 후
위험자산 다변화 및 안전자산 투자 지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했고, 변동성 지수인 VIX와 MOVE는 주간 기준 각각 18%, 12% 하락했다. 이는 AI 밸류체인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이목이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메타는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했고, 아마존은 AI 칩셋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GPU를 넘어 추론에서 CPU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미국 정부의 지분을 통해 힘을 받고 있는 인텔의 주가 상승세는 가파르다. 변동성 불안감이 완화된다면, AI CAPEX 흐름의 지속성, AI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의 매출 및 이익 창출력 유지에서 추가 모멘텀 확보, 클라우드 성장률 확인 등이 관건으로 작용하겠다. 이와 관련한 재무적 수치를 확인하기 보다는 물밑에서의 기업, 산업 움직임이 AI 밸류체인에 투자 모멘텀을 제공하는지를 찾을 때다. 단, 투자는 보수적 스탠스 하에서 지속하면서, 위험자산의 다변화는 곧 안전자산 포지션의 매력을 지지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기에 균형 잡힌 그리고 점진적 투자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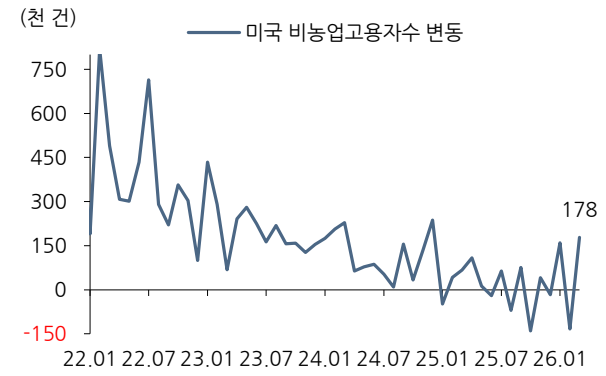
그림 1. 자산별 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부동산원,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지표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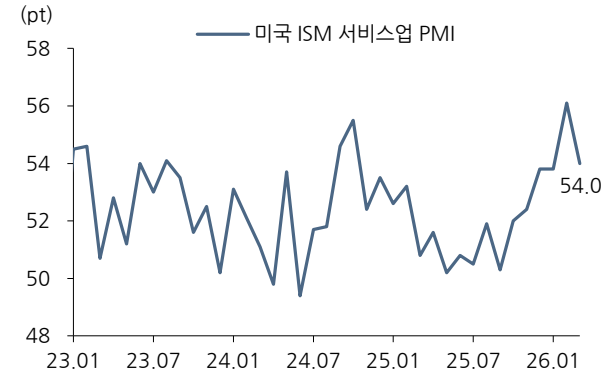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3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3일(현지시간) 미 노동통계국(BLS)에서 발표한 3월 비농업 고용자수는 전월대비 17.8만명 증가하며 예상치(+5.9만명)를 크게 상회. 2월 고용은 기존 -9.2만명에서 -13.3만명으로 하향 조정
- 헬스케어(+7.6만명)가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으며, 이 중 외래 진료서비스(+5.4만명)에서 카이저 퍼머넌트 파업 종료에 따른 복귀 인력 약 3.5만명이 반영된 결과
- 반면 연방정부(-1.8만명), 금융(-1.5만명) 부문은 감소세 지속. 헤드라인 수치는 예상을 크게 상회했으나, 헬스케어 부문 제외한 실질 고용 증가폭은 약 10.2만명 수준으로 고용시장의 완만한 둔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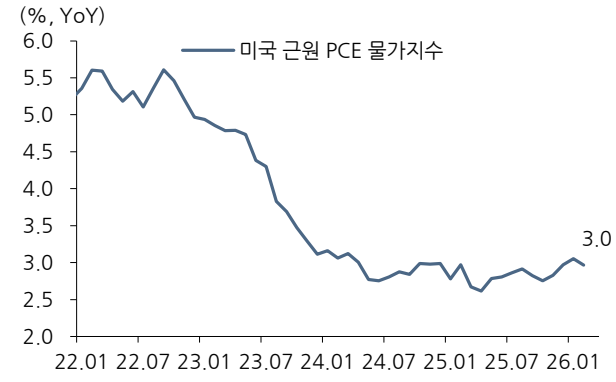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3월 ISM 서비스업 PMI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서 발표된 3월 서비스업 PMI는 54.0pt로, 예상치(55.4pt)와 전월치(56.1pt)를 모두 하회. 다만 21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
- 신규주문지수는 60.6pt로 23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반면, 고용지수는 45.2pt로 전월대비 6.6pt 급락
- 서비스업 경기 자체는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란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급등이 투입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된 것으로 파악

그림 3. 미국 2월 근원 PC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9일(현지시간) BEA에서 발표한 2월 근원PCE 물가지수는 MoM +0.4%, YoY +3.0%로 예상치에 부합. 전월(+3.1%) 대비 소폭 둔화. 한편, 헤드라인 PCE는 MoM +0.4%, YoY +2.8%
- 개인소득은 MoM -0.1%로 예상을 하회한 반면 개인소비지출은 +0.5% 증가하며 소득-지출 괴리 확대. 저축률은 4.0%로 1월(4.5%) 대비 하락해 소비자들의 저축 소진 양상 뚜렷
- 근원 PCE 상승률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3%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유가 급등 이전부터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 확인됨을 시사.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아직 본격 반영되지 않아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확대될 것

1. 경제

미국 3월 고용: 서프라이즈가 아닌 쇼크?

미국 3월 고용 +17.8만명, 예상치 상회

4/3 발표된 미국 3월 비농업고용자 수는 전월대비 17.8만명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 컨센서스인 6.5만명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실업률은 4.3%로 전월 4.4%에서 소폭 하락했고,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3.5%를 기록하며 컨센서스(+3.7%)와 전월치(+3.8%)를 모두 하회했다. 헤드라인 수치만 놓고 보면 2월의 부진(-13.3만명)을 만회하는 고용 호조가 확인되었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Good Friday로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발표되었으며, 연준기금금리 선물 기준 연내 동결 확률은 77%로 반영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는 시장의 침체 우려를 일부 희석시키는 이벤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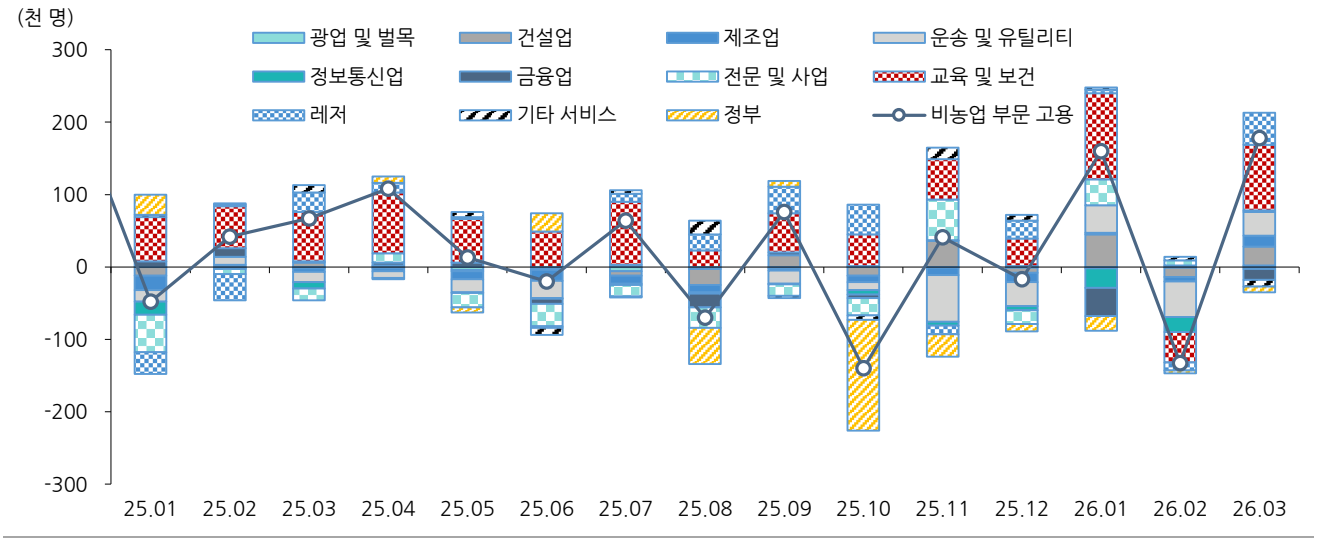
헬스케어 파업 복귀와 제조업 반등

세부 업종별로 보면 3월 고용 증가의 최대 기여 업종은 헬스케어(+7.6만명)였다. 이는 2월 조사기준주에 파업 중이던 의료 노조 약 3.5만명의 복귀가 반영된 결과다. 헬스케어 외에도 레저·숙박(+4.4만명), 건설(+2.6만명), 운송·창고(+2.1만명), 제조업(+1.5만명) 등 전반적인 업종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1.5만명 증가는 2년여 만의 최대 증가폭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 연방정부(-1.8만명), 금융(-1.5만명)에서는 감소가 이어졌으며, 정보통신업과 전문·사업서비스업은 유의미한 변화가 부재했다.

날씨와 파업을 고려하면 3월 고용은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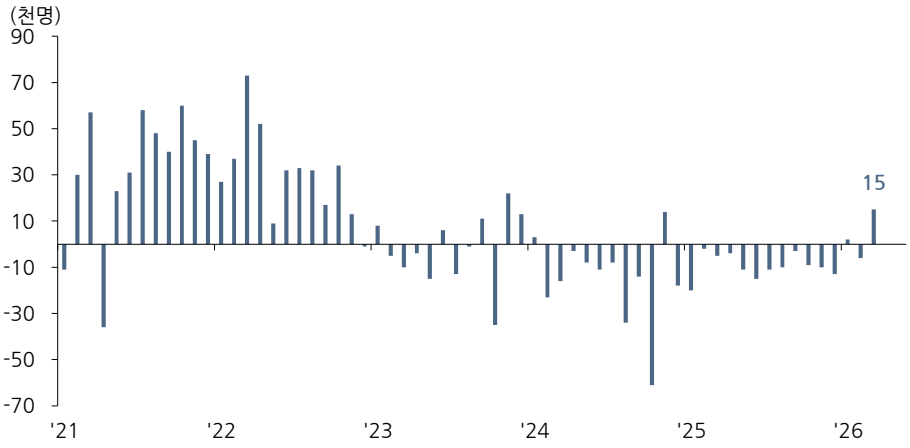
다만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는 날씨 개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날씨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날씨 조정 고용 변화 모델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해당 모델은 일별 기상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절조정 이후에도 남아 있는 비정상적 기상 조건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즉 공식 비농업고용 증감에서 해당 모델이 추정한 날씨 효과를 차감하면 날씨 조정 고용을 확인할 수 있다. 3월에는 겨울 폭풍 이후 온화해진 날씨의 영향으로 고용이 약 +25.7만명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 실제 발표치인 +17.8만명에서 이를 차감하면 날씨 조정 고용은 -7.9만명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해당 모델은 날씨 변수와 고용 간의 과거 통계적 관계에 기반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영향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파업 복귀에 따른 고용 증가(+3.5만명)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번 서프라이즈의 상당 부분이 일시적 요인에 기인했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즉, 고용의 추세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용 정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 결과다.

그림 1. 월별 비농업 고용 기여도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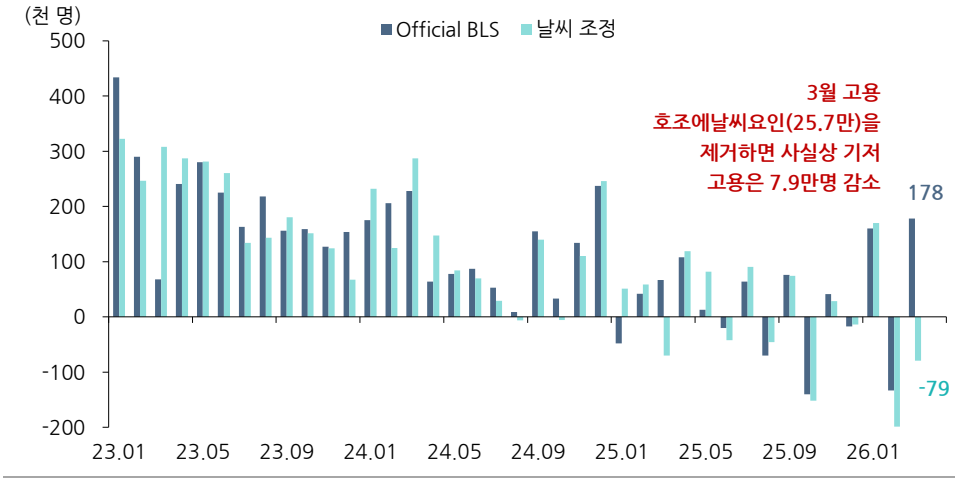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제조업 고용 증가(+1.5만)는 긍정적



자료: BLS,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BLS 공식 비농업 고용 발표와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날씨 조정 비농업 고용



자료: BLS, 샌프란시스코 연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2. 주식

국내 증시: 개방되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상승에도 불안한 증시

미국-이란 협상에 휘청인 증시

KOSPI는 전주대비 +7.45% 상승한 5,778.01pt를 기록하였다. KOSDAQ은 전주대비 +1.15% 상승한 1,076.00pt를 기록하였다. 금주 한국 증시는 트럼프가 24시간 연기했던 종전 데드라인(4/7 현지시간)을 앞두고 경계심리 속 상승 출발했다. 주중 발표된 삼성전자 1Q 잠정실적에서 영업이익 57조(시장 예상치 4~50조 내외)의 서프라이즈가 확인되었음에도 오히려 셀온 흐름이 나오며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호르무즈 개방 소식에 급등 -> 통제에 다시 관망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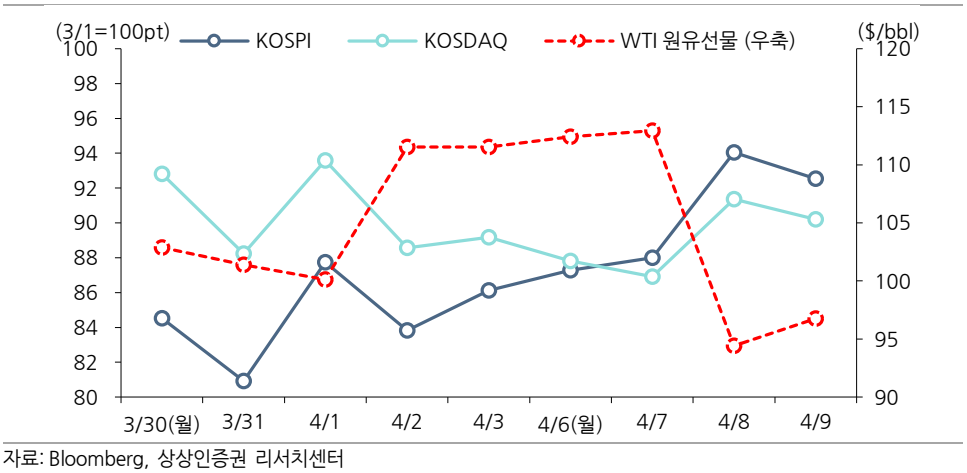
한국시간 4/8일 오전 7시 30분경,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간 휴전을 발표했고, 당일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와 함께 +6.87% 상승 마감하였다. 다만, 휴전 합의 소식에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강행했고, 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량 재통제 및 통행료 징수를 예고하자 증시는 다시 관망-약세흐름으로 돌아섰다. 다만, 전쟁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투심은 전쟁 종식이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과 함께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4/6~9 4일간 외국인 KOSPI 약 4조 순매수

KOSPI 투자자 수급에서는 기관계 및 외국인 매수세가 4/8(수) 각각 2.7조, 1.9조 유입된 반면 개인은 당일 5.4조를 매도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당일 KOSPI 급등 이면에는 숏커버 + 원화 강세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4/9(목) 국내 증시는 재차 관망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장중 반전이 빈번했던 흐름과 달리, 뚜렷한 반등 시도 없이 장 초반부터 일방향 약세가 이어졌다. 그 가운데 외국인투자자는 4/6~8 3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건설(+18.7%), 반도체(+10.9%), 통신(+9.3%) 등이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미디어/엔터(-2.0%), 헬스케어(-0.4%) 섹터는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종전 이후 중동 재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건설 업종의 수익률 상승을 야기한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인 한 주였다. 통신 섹터는 SK텔레콤 호실적+배당 기대감에 상승, 미디어/엔터주는 모멘텀 부재 및 실적 기대감 약화에 하락하였다.

그림 1. 4월 국내증시 & WTI 선물 가격 비교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증시 차주 전망: 협상 미지수에도 증시는 종전 기대감 반영

종전 시나리오 시 대량의 매수세 유입 기대

차주 국내 증시는 미국-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각 상이한 입장 속 협상 결과가 주요 변수이겠으나, 투자자들은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결렬과 지상군 투입, 전쟁 장기화라는 Bear 시나리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종전 기대감에 따른 매수세가 증시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적 개방->통행료 부과의 시나리오 발생 시 개별 국가 각자도생 국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증시 투심 위축을 야기할 수 있겠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1Q 실적 기반의 매수세 유입 기대

증시의 Base or Bull 시나리오에서는 1Q 실적개선 종목&업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금주에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반도체, 통신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에이피알 호실적 기대에 화장품 섹터가 반등한 반면 엔터/레저 업종이 약세를 보인 만큼 펀더멘털 기반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체력이 탄탄한 대형 주도주 또는 성장성이 높은 중, 소형주의 강세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겠다.

Bear 시나리오에서는 3월 이후 전쟁 양상과 유사하게 에너지, 방산 업종이 시장수익률을 아웃퍼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강관/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 타격에 따른 수혜주 역시 부각되겠다. NATO와 미국의 대립, 그린란드 발언 등을 고려했을 때 방산 섹터의 강세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차주에는 IMF 세계경제전망(WEO),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연준 베이지북 등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월가 대형 은행, TSMC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다만, 4/11일 예정된 이슬라마바드 종전 협상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별적으로는 미국 AACR 암학회(4/17~22)에 따른 바이오 기업의 주가 변동 역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중국 증시: 전쟁 전개 양상 반영, 테크주 중심 강세

청명절 휴장 이후 급등, 반도체 및 AI 테크주 중심 강세장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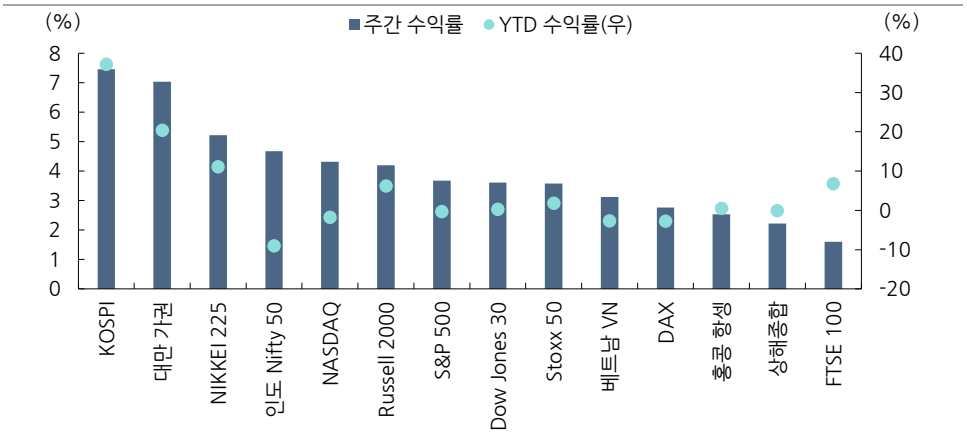
상해종합지수는 전주대비 +2.22% 상승한 3,966.17pt를 기록하였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주대비 +2.42% 상승한 25,723.29pt를 기록하였다.

이번 주 상해종합지수는 청명절로 인한 월요일 휴장 이후 화요일 미-이란 2주 휴전 합의 소식에 +2.7% 급등하며 4,000선에 근접했다. 업종별로는 AI,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가 랠리를 주도한 반면, 유가 하락 반영으로 페트로차이나, CNOOC 등 에너지주가 급락하였다. 한편, 중국 정부의 소매 유류가격 동결 조치도 소비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주 후반에는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금요일 중국 CPI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 역시 약세를 지지했다.

한편 항셍증시 역시 글로벌 자산시장에 연동된 가운데 부활절로 인한 화요일 휴장 이후 재개장에서 호재들을 몰아서 반영, 금융, 기술, 소비주들 중심의 상승장이 시현되며 강세를 보였다. 상해증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주 급락이 발생한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며 목요일에는 하락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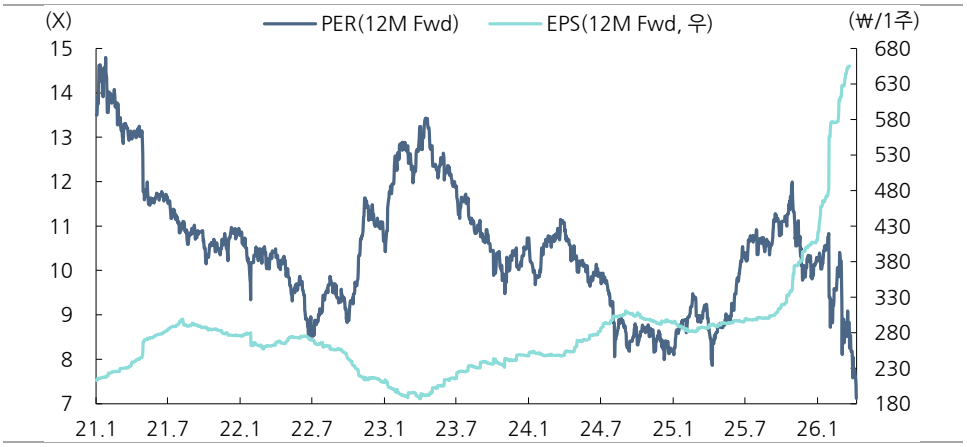
상해 증시는 정보기술(+7.4%), 소재(+5.8%), 커뮤니케이션(+4.0%) 등이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에너지(-1.0%), 금융(-0.2%), 필수소비재(-0.2%) 등은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그림 2. 증시별 주간/YT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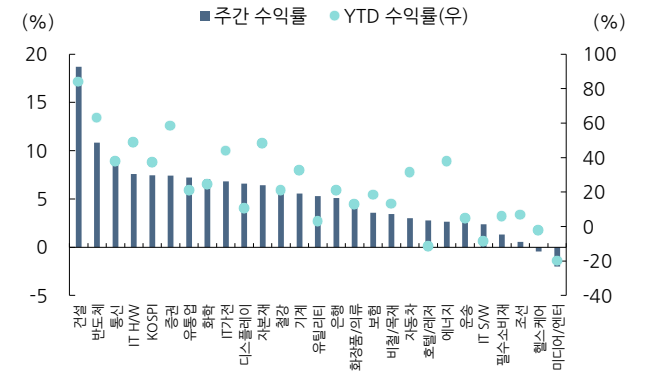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KOSPI 12M Fwd PER,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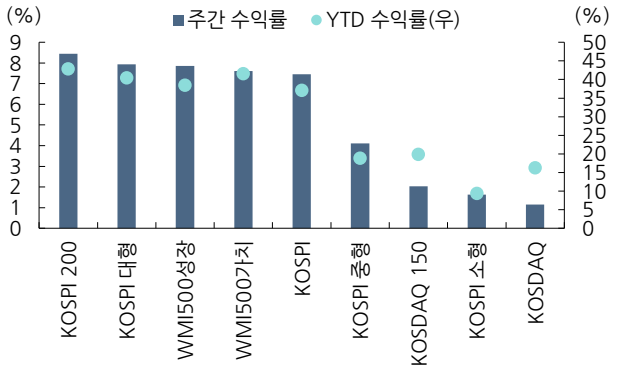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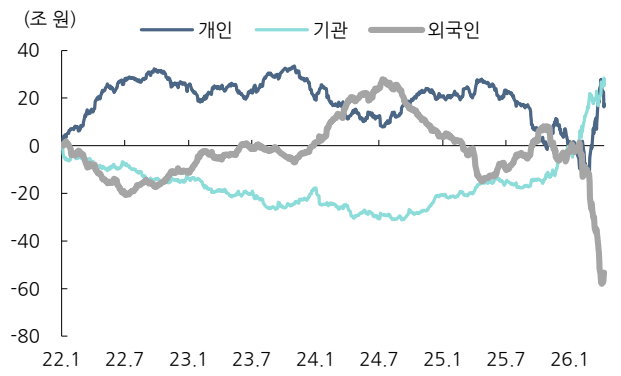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KOSPI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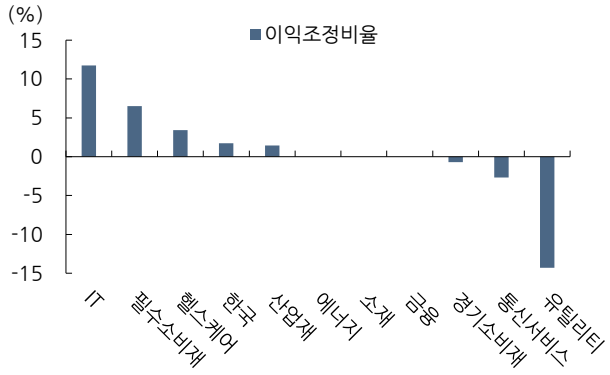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국내 증시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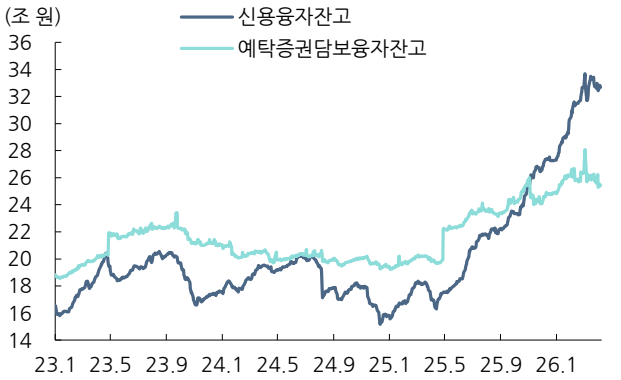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한국 증시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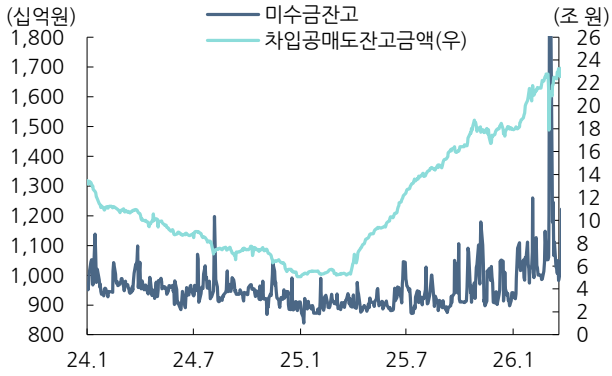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한국 증시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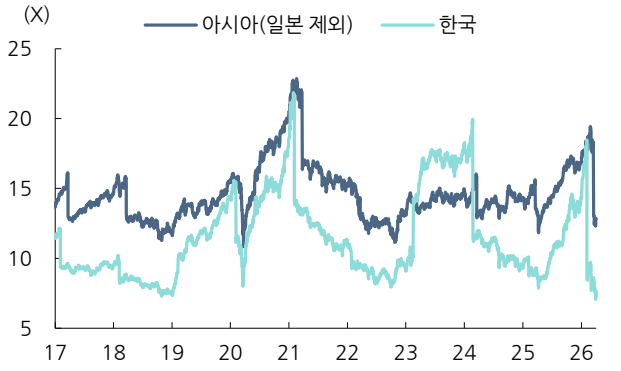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한국 증시 미수금잔고 및 차입공매도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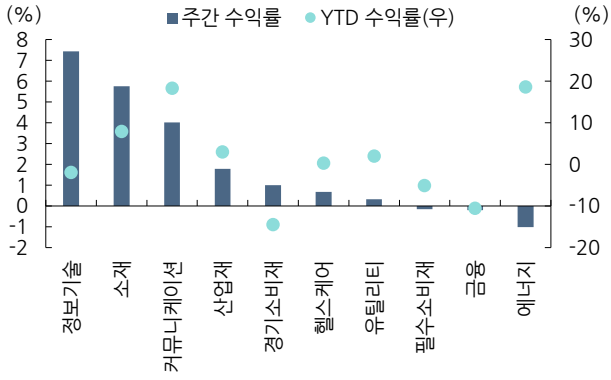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아시아(일본 제외), 한국의 PER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상해종합지수 업종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미국 증시 Review: 휴전 합의는 긍정적 / 인플레 충격 여파는 미확인

금주 미국 증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정학 리스크의 완화가 가격을 끌어올렸으나 인플레이션이라는 근본적 제약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한 주였다.

4월 7일(화) 파키스탄 총리의 중재안이 전해지면서 장중 1.2% 하락하던 S&P 500이 낙폭을 전량 회복하였고, 8일(수) 공식 휴전 선언과 함께 전 자산군에 걸친 대규모 리스크온이 발생하였다. 다우 +2.85%(2025년 4월 이후 최대 일간 상승), S&P 500 +2.5%, 나스닥 +2.8%를 기록하였으며, VIX는 20 부근까지 급락하였다. 9일(목)에도 이스라엘의 대레바논 직접 협상 수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S&P 500은 7거래일 연속 상승(6,824.66)이라는 10월 이후 최장 연승 기록을 이어갔다.

문제는 이 반등의 성격이다. 5주간 축적된 숏 포지션의 청산이 매수세의 실체인 상황에서, 실질적 신규 매수 수요가 동반되었는지는 거래량 분석상 확인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도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6,655)을 상향 돌파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50일선(6,771) 저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추세 전환을 확인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밴스 부통령이 "취약한 합의"라고 직접 인정한 점, 이란 내부에서 합의 내용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공존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 랠리가 추가 상승의 기반이 아닌 변동성 확대의 전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란 국회의장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휴전 위반이라 규정하면서 장중 상승분이 일부 반납되었고, 10일(금) 오전에는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WTI가 다시 100달러를 상회하였다.

휴전 수혜는 유가 민감 섹터에 집중되었다. 항공 섹터가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여 델타항공은 호실적 발표까지 겹치며 +6% 이상 급등하였고, 크루즈 업종도 8%대 반등을 기록하였다. AI 관련주 역시 리스크온 수혜를 받아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AMD, 마이크론이 4~10% 상승하였다. 반면 에너지 섹터는 유가 급락의 직격탄을 받아 주간 유일한 하락 섹터로 전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2월 이후 에너지가 S&P 500 내 유일한 양의 수익률을 기록해온 추세(1분기 +34%)의 반전이다.

주목할 부분은 러셀 2000의 강세다. 소형주는 원자재 비용에 대한 전가 능력이 대형주 대비 취약하므로, 유가 하락 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당사는 소형주의 상대 강세가 지속되려면 유가의 100달러 이하 안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금일 WTI의 재차 100달러 돌파는 이 전제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금일 발표된 3월 CPI(컨센서스: MoM +0.8~0.9%, YoY +3.1~3.7%)는 에너지발 인플레 충격의 첫 공식 확인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2월 CPI가 MoM +0.3%, YoY +2.4%였던 점을 감안하면 헤드라인의 급등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며, 핵심은 Core CPI의 2차 파급 여부에 있다. FOMC 의사록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등장한 만큼, Core까지 예상을 상회할 경우 연내 인하 기대는 사실상 소멸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협상 영향력 제거: 구조적 불확실성 축소

이번 휴전의 협상 구도가 미·이란 양자 구도로 전환되면서 호전적이며 예측 불가능했던 이스라엘 변수가 사실상 배제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쟁 초기부터 미국에게 지상군 투입 및 호르무즈 해협 강제 개방 등을 요구하던 이스라엘은 미·이란 핵심 의제에서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휴전 효력지역 편입을 요구하며 협상 보이콧에 나서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에 대한 독자적 군사행동을 지속하면서도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레바논과의 직접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당사가 합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핵심 근거는 양측의 인센티브 구조이다. 트럼프에게 이 전쟁은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다. 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 및 소비자 심리지수를 직격하고 있어 중간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란 측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으로 핵심 석유 인프라인 하르그섬 터미널이 공격받았고, 경제 제재하에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내부에서 온건파(전 대통령 로하니, 라리자니 등)가 최고지도자에게 휴전을 압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불확실성 요소가 축소되는 국면에서 양측의 요구사항이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입지 때문에 거리가 멀어 보이나, 물밑으로는 적정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M7 & IT의 역습: 반도체 가격 통제불가 & 빅테크 밸류에이션 역사적 하단

시장의 시선이 전쟁에 쏠려있는 동안 반도체 및 기술 섹터에서는 실적시즌을 앞둔 기대가 퍼지고 있다. TrendForce에 따르면 1분기에만 NAND 플래시 가격은 55~60% 상승하였으며, 서버 DRAM은 60% 이상, 클라이언트 SSD는 40% 이상의 QoQ 가격 상승이 확인되었다. TrendForce는 Q2 2026에도 추가 20%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며, 2026년 NAND 수요 성장률(20~22%)이 공급 성장률(15~17%)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구조적 수급 갭이 올해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의 공급 부족은 HBM, DRAM, NAND 모두 메모리 업사이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반도체 실적의 추가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덧붙여 기술주의 밸류에이션도 역사적 하단에 위치한 상황이다. M7 선행 PER이 29배 이하로 하락하여 역사적 저점을 갱신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4개 종목이 평균 PER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격 하락과 EPS 상승 추세가 동시에 전개되며 더 이상 밸류에이션 측면에선 억누르기 어려운 가격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불확실성으로 주요 기관과 헤지펀드가 현금 보유 비중을 크게 확대한 상황에서 휴전에 따른 Risk-On 기조가 복귀될 경우, 그간 눌려있던 빅테크 & IT 기업의 주가 상승이 한동안 부진했던 지수를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에 비해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협상 결렬 및 글로벌 유가 재상승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대는 그런점을 감안해도 충분히 싸다고 판단하는 듯 하기 때문에 포지션 축소는 매물 출회가 제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주 핵심 시장 이벤트: 3월 PPI 발표, 연준 베이지북 공개 등

화 4/14 — 미국 3월 PPI 발표

2월 PPI는 MoM +0.7%로 컨센서스(+0.3%)를 큰 폭으로 상회했고, YoY 기준으로도 +3.4%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3월에는 이란전쟁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어서 헤드라인이 2월보다 더 뜨겁게 나올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금일 발표된 3월 CPI가 MoM +0.9% 내외로 에너지발 급등을 확인시켜주었다면, PPI에서도 동일한 방향성이 나타나는지가 관건이 된다. 다만 Core PPI가 2월(+0.5%)에 비해 안정된다면 에너지 일회성 충격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면서 성장주 반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반대로 Core까지 상승세가 확인되면 Fed의 연내 인하 기대는 사실상 소멸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수 4/15 — 한국 3월 고용동향/수출입 확정치, 연준 베이지북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주 수요일이 가장 밀도 높은 날이다. 고용동향에서 실업률 상승이 확인되면 금일 BOK 금통위 결과와 맞물려 추가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원화 약세·채권 강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 확정치는 속보(+48.3% YoY)에서 이미 강한 수치가 나왔으나, 품목별로 HBM 관련 기여도와 대중 반도체 비중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분기 컨센서스 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세부 내역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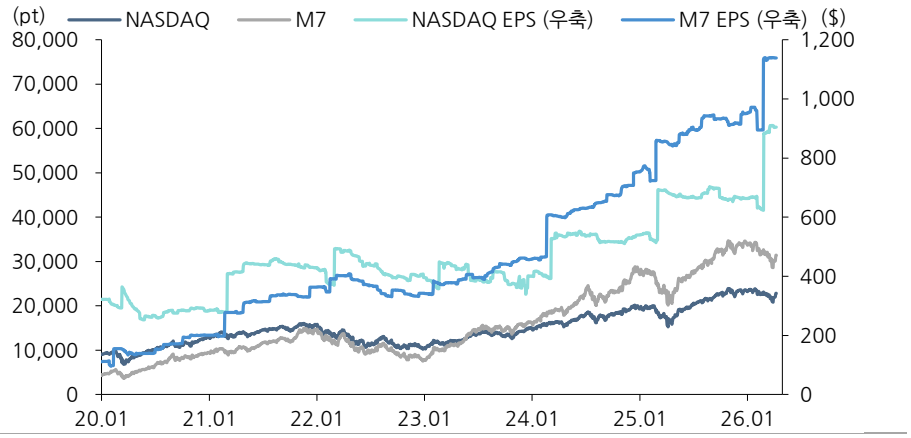
같은 날 발간되는 Fed 베이지북은 4/28~29 FOMC 직전의 지역경기 체감 보고서다. 고용·소비 둔화 서술이 늘어나면 금리인하 베팅 강화, 인플레 언급 빈도가 높아지면 매파적 재료로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 4/16 — 미국 3월 소매판매, 중국 1분기 GDP

차주의 실질적 빅데이다. 미국 소매판매는 2월 Control Group 기준 +0.3%였는데, 3월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훼손된 만큼 소비 둔화 여부가 확인되는 첫 하드데이터라 할 수 있다. Control Group 부진 시 1분기 GDP 하향 조정과 함께 경기침체 내러티브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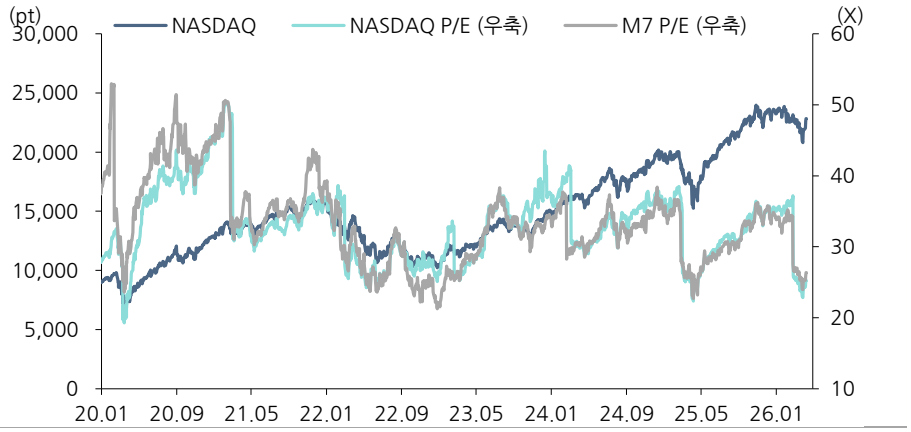
같은 날 발표되는 중국 1분기 GDP는 2025년 4분기(YoY +4.5%)에서의 반등 여부가 초점이다. 컨센서스는 연간 4.5% 내외(GS 4.8%)인데, 1분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가 5년째 지속되고 있어 내수 체력이 관건이다. 중동 리스크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한 환경에서 중국마저 둔화가 확인되면 원자재·원화·코스피의 동조적 약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로 예상 상회 시 한국 수출주·소재주 센티먼트 개선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림 12. NASDAQ vs M7 주가지수 및 EPS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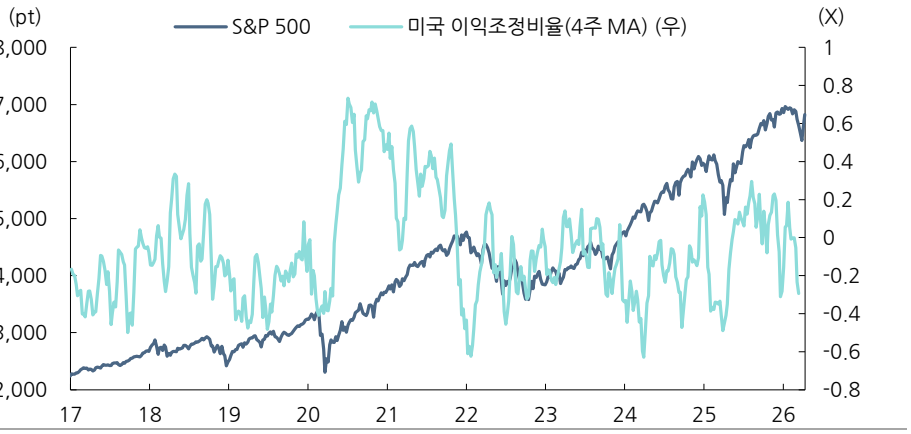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NASDAQ vs M7 P/E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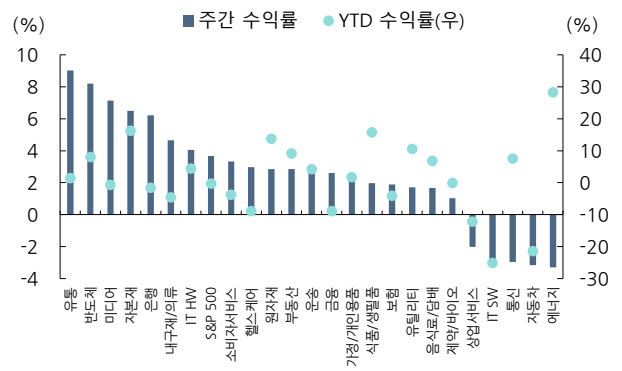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S&P 500 주가 추이 및 이익조정비율(4주 M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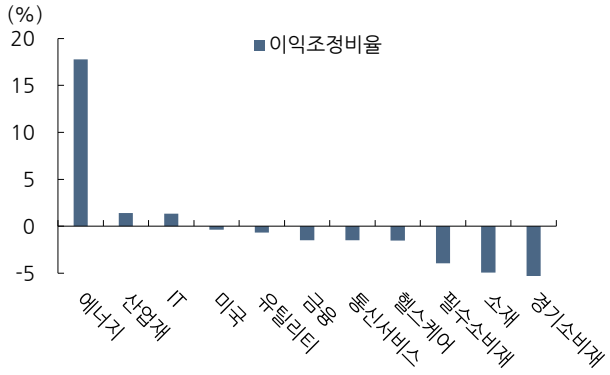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S&P 500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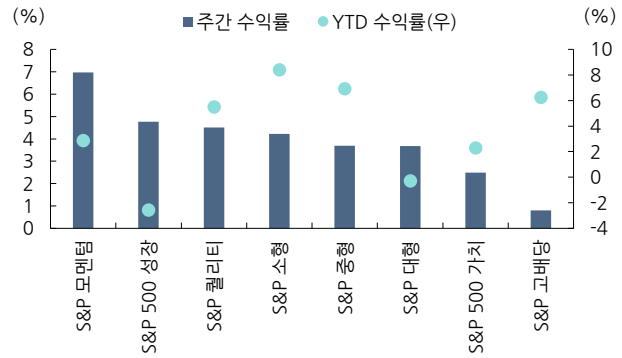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S&P 500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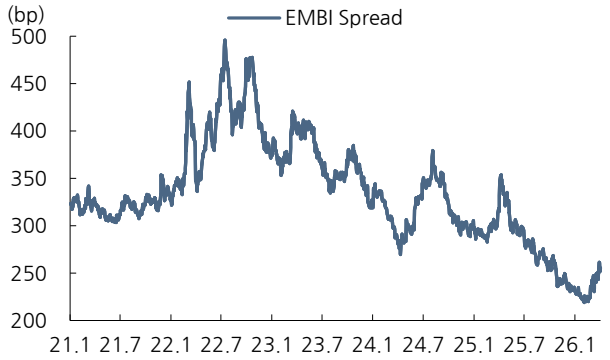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S&P 500 스타일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EMBI Spread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1. MSCI AC World 업종별 주요 지표

업종	업종별 EPS 변화율 (%)				컨센서스 추이 (%)	업종별 수익률 (%)				지수 추이 (%)
	1W	1M	3M	YTD		1W	1M	3M	YTD	
글로벌(M. AC World)	1.7	2.4	7.0	9.4		4.0	2.5	-0.6	1.0	
에너지	5.0	15.8	18.9	15.5		-2.2	1.9	22.1	28.4	
소재	1.6	1.6	12.7	15.3		4.4	3.4	4.3	11.8	
자본재	1.7	1.0	4.5	5.9		6.4	4.1	5.5	13.2	
상업/전문서비스	0.5	-0.1	1.6	2.0		-0.4	-3.2	-13.8	-13.8	
운송	0.7	0.4	2.5	2.7		2.9	3.5	2.4	4.1	
자동차/부품	0.6	-0.3	-1.6	1.3		-0.1	-6.5	-13.8	-17.2	
내구소비재/의류	-0.2	-1.8	-1.2	0.0		4.2	0.2	-11.1	-10.7	
소비자 서비스	0.5	-0.5	0.5	3.1		2.8	1.2	-7.2	-8.8	
소매	2.9	-1.2	-0.3	2.7		7.8	5.8	-6.0	-2.4	
식품/필수품 소매	0.9	-0.9	1.4	2.6		1.7	1.8	5.8	11.8	
식품/음료/담배	0.4	-1.3	1.3	0.7		1.7	-0.3	2.4	3.8	
가정용품/개인용품	0.3	-1.5	0.5	-0.4		2.7	-2.9	-4.3	-2.9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1.1	0.4	2.1	3.1		2.9	-0.5	-11.0	-9.8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	1.7	0.2	0.6	0.5		0.8	0.9	-1.6	-0.6	
은행	0.7	-0.2	3.3	5.3		5.3	7.2	1.3	2.0	
기타 금융	1.0	-0.1	3.0	4.3		3.2	3.8	-9.0	-9.3	
보험	0.2	-0.5	2.6	3.4		2.6	4.4	0.6	-1.7	
소프트웨어/서비스	0.6	0.6	-0.1	3.2		-2.8	-8.5	-21.9	-26.7	
기술 하드웨어/장비	2.9	3.4	18.9	27.0		5.8	5.8	9.5	8.5	
반도체/장비	4.0	12.2	31.4	40.5		8.9	5.9	6.7	12.9	
통신서비스	0.2	-1.3	-2.0	3.9		0.3	-0.9	8.8	6.8	
미디어/엔터	1.5	1.0	3.4	1.9		6.4	1.5	-5.2	-4.1	
유틸리티	0.5	-0.6	2.2	2.3		2.1	2.9	9.8	11.9	
부동산	0.0	-1.5	-17.3	-17.1		3.2	1.8	4.3	6.9	

자료: LSE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표 2. S&P500 업종별 주요 지표

업종	업종별 EPS 변화율 (%)				컨센서스 추이 (%)	업종별 수익률 (%)				지수 추이 (%)
	1W	1M	3M	YTD		1W	1M	3M	YTD	
미국(S&P500)	2.3	3.9	8.4	9.7		3.7	2.3	-1.7	-1.5	
에너지	1.8	11.7	11.6	9.8		-2.2	1.5	21.7	30.8	
소재	2.0	3.8	12.4	13.0		2.7	4.6	5.5	12.2	
자본재	3.5	2.5	5.4	6.7		5.0	4.1	5.7	12.5	
상업/전문서비스	0.7	-0.4	0.7	1.6		-1.0	-4.3	-12.6	-12.2	
운송	0.9	0.4	2.7	4.2		2.3	4.4	-0.1	2.6	
자동차/부품	3.4	1.6	6.9	10.5		-3.8	-11.5	-20.4	-27.3	
내구소비재/의류	-3.4	-4.9	-2.0	-0.9		3.0	-1.9	-11.3	-5.7	
소비자 서비스	1.2	1.0	2.9	4.4		3.8	1.9	-4.8	-5.5	
소매	3.3	2.6	4.6	6.2		4.7	4.2	-7.1	-3.6	
식품/필수품 소매	0.8	0.5	2.0	2.9		1.3	1.1	5.6	14.4	
식품/음료/담배	-0.8	-0.9	0.1	0.7		0.7	-2.1	1.2	4.8	
가정용품/개인용품	0.3	0.4	1.6	1.9		1.3	-3.7	-1.9	-0.3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1.4	1.3	2.8	4.0		3.5	0.3	-10.2	-9.0	
제약/생명공학/생명과학	2.1	2.1	2.5	2.0		1.0	-0.3	-1.2	-0.9	
은행	1.8	1.8	4.9	6.7		4.9	10.5	-0.4	-5.2	
기타 금융	0.7	1.0	2.8	4.1		2.8	3.5	-9.3	-10.3	
보험	0.0	0.1	1.8	2.6		1.9	2.2	-0.3	-5.0	
소프트웨어/서비스	0.8	0.6	4.0	5.1		-0.7	-6.6	-19.4	-24.8	
기술 하드웨어/장비	2.7	2.0	12.0	13.3		3.3	4.9	6.1	2.7	
반도체/장비	5.0	15.9	32.6	37.2		6.4	4.2	2.2	4.8	
통신서비스	-1.9	-2.1	-1.3	8.5		-2.4	-4.4	12.1	9.3	
미디어/엔터	3.5	3.0	6.3	3.0		6.0	1.8	-3.3	-2.3	
유틸리티	1.3	1.2	3.0	3.8		0.9	1.1	7.2	9.1	

자료: LSE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3. 채권

중동 변수 속 WGBI 수급 요인에 강세

국내 채권시장은 휴전 기대감이 투심을 개선시키며 강세 시현

금주 국내 채권시장은 중동 합의 과정 속 국제 유가의 변동에 채권금리는 등락을 보였으나, WGBI 편입과 함께 종전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며 채권시장은 강세장을 시현했다. 주 초반 미국-이란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경계심리가 약세압력으로 작용했다. 이후 미국-이란의 2주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장을 시현했다. 다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과 함께 휴전 합의 균열 조짐이 확인되자 주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고유가에 따른 추경 부담감에도 국채 시장은 WGBI 저가 매수 인식 확대 속 휴전 기대감이 강세폭을 확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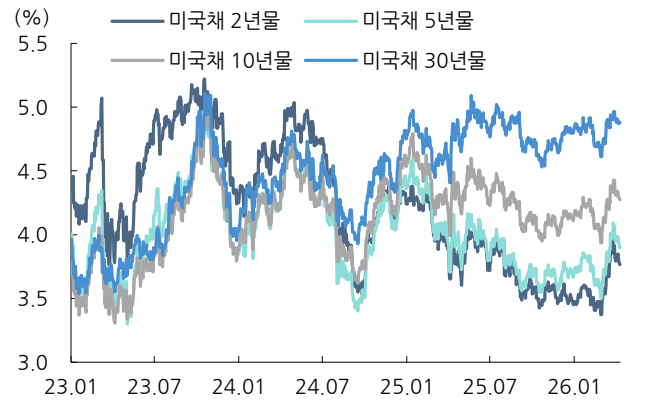
미국 채권시장은 휴전 가능성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에도 제한적 강세

금주 미국 채권시장은 3년 및 10년물 국채 입찰을 소화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감에 강세장을 시현했다. 주 초반 휴전 합의 소식이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경감시키며 채권가격은 상승했다. 주 중반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둔화될 시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점도 강세 흐름을 지지했다. 다만, 휴전 합의에 대한 균열 조짐 역시 확인되고 있고, 고유가의 정상화를 논하기에 시기상조인 점이 채권가격의 상승폭을 제한하였다. 주간 수익률 곡선은 전주대비 불-스티프닝을 시현했다.

그림 1. 주요 만기물별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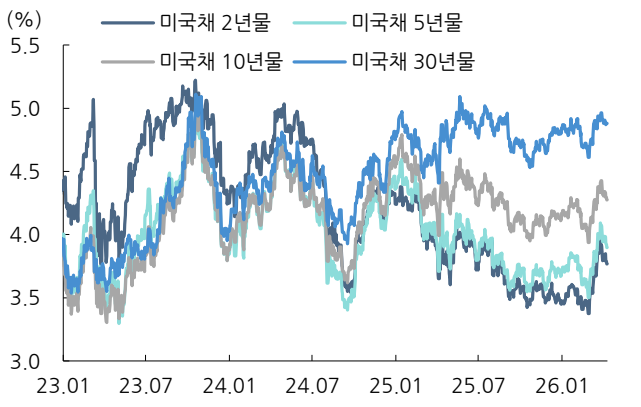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 국채 주요 만기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 국채 장단기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4. 원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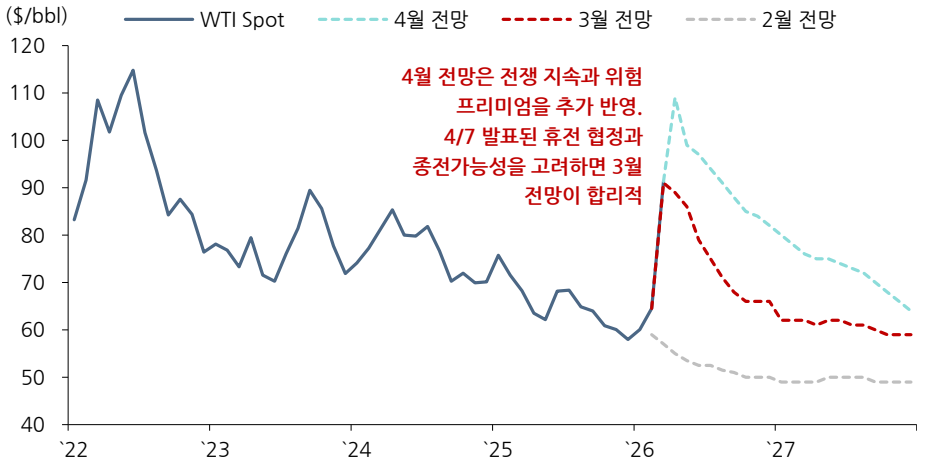
EIA 4월 유가 전망에 휴전 합의를 대입하면?

EIA는 4월 STEO(Short-Term Energy Outlook)에서 2026년 브렌트유 전망을 전월(3월) 대비 배럴당 $17 상향한 $96/bbl로 제시했다. 3월에 이미 $21 상향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의 상향 조정이다. 이라크·사우디·쿠웨이트·UAE·카타르·바레인 중동 6개국의 생산 차질이 3월 750만b/d로 추정되고, 4월까지 유지될 경우 910만b/d(글로벌 공급의 약 9%)로 전망됨에 따라 2분기 브렌트유 전망을 $115/bbl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중동 생산 차질과 주요국 전략 비축유 방출을 반영한 '26년 글로벌 원유 재고 전망은 3월의 187만b/d 축적(공급과잉)에서 28만b/d 순유출(공급부족)로 전환됐다.

이번 EIA의 유가 전망은 중동 전쟁이 4월 이후 지속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점차 재개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다만 해협 통행 재개 후에도 상당 기간 공급 차질 가능성을 고려, 2026년 후반까지는 유가가 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말 유가(WTI) 전망을 $82/bbl로 높게 설정하였다. 더불어 중동 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증가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예측 기간 내내 유가에 더 큰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여 중장기 유가 전망인 '27년 평균 유가(WTI)도 72달러로 상향 조정(3월 전망 $60.8/bbl)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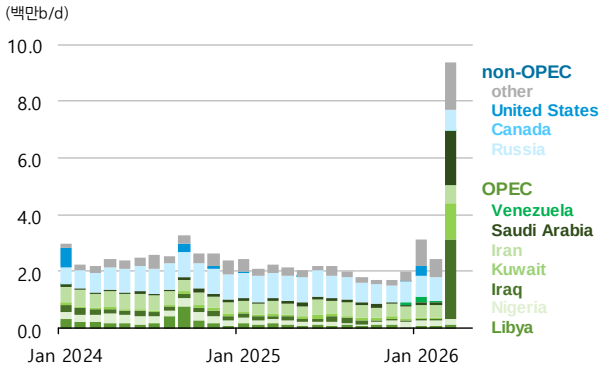
다만 4/7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재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 합의를 발표하였다. 휴전 소식에 WTI는 장중 91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2주간의 휴전 합의가 종전으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서는 EIA가 4월에 추가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은 되돌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신 전망인 4월 STEO보다 전쟁의 조속한 종전을 가정한 3월 STEO상의 유가 전망 경로를 참고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보다 합리적이다. 3월 유가 전망 경로는 4월 $89/bbl을 고점으로 3분기 $71.3/bbl, 4분기 $66/bbl로 연말 전쟁 이전 수준까지의 완만한 하락을 전망하였다. 해당 경로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2분기까지는 80달러 전후 유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까지는 물가지표상 에너지 가격 반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연말 유가 안정이 가시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물가 안정 확인에 선행할 수 있어, 당사의 하반기 1회 금리 인하 전망에 부합하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 1. WTI Spot 가격 및 EIA 전망



자료: EIA,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글로벌 계획되지 원유 않은 생산 차질 물량 추정



자료: EIA,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원유 생산 차질 추정치

Table 1. Estimated Strait of Hormuz closure-related disruptions in crude oil production (thousand barrels per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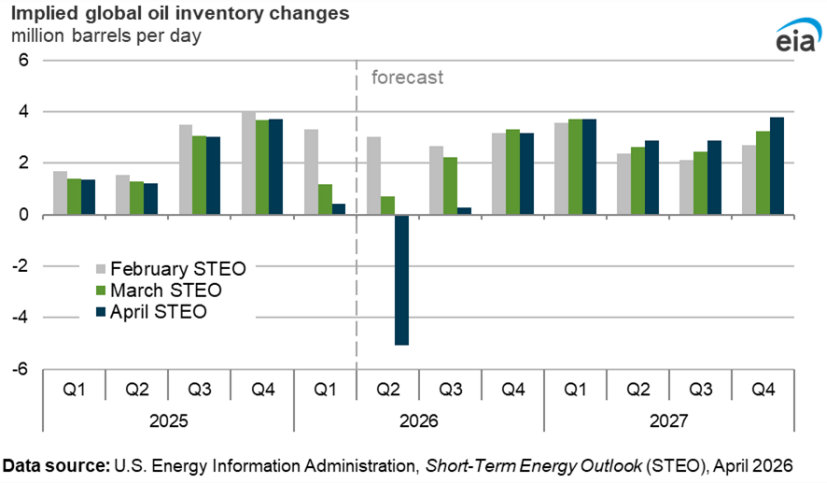
Country	Production Feb-26	Estimated Shut-ins Mar-26	Forecast Shut-ins Apr-26	Forecast Shut-ins May-26	Forecast Shut-ins Jun-26	Forecast Shut-ins 3Q26	Forecast Shut-ins 4Q26
Kuwait	2,560	1,250					
UAE	3,600	1,110					
Iraq	4,370	2,820					
Qatar	616	316					
Bahrain	193	130					
Saudi Arabia	10,400	1,900					
Total	21,739	7,526	9,096	6,713	4,947	2,173	168

We only forecast aggregate disruptions for future months

Data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 EIA

그림 4. EIA의 글로벌 원유 재고 변화(수급) 전망



Data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hort-Term Energy Outlook* (STEO), April 2026

자료: EIA

5.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 기준 완화, 시장은 눈치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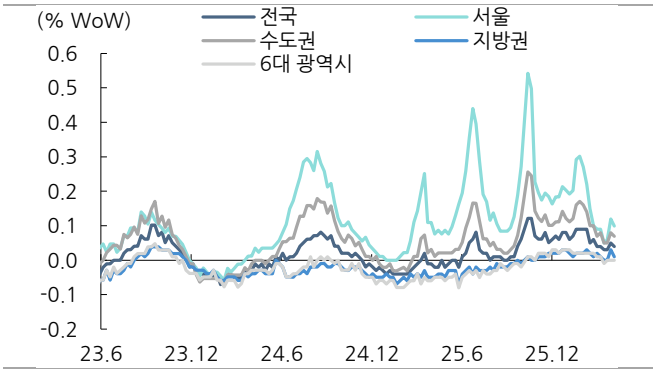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기준 완화, 시장은 관망세 지속

4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매매가격은 0.10% 상승하며 전주(0.12%) 대비 가격 상승폭은 소폭 축소되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기간을 한 달 가량 앞둔 가운데 지난 6일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 기준을 5/9일까지 토허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기존안 '5/9까지 계약 및 계약금 지급'에서 규제를 한단계 완화시킨 것으로, 다주택자 매도 매물 출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변화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 아파트 시장은 한차례의 급매물 소화 이후 관망 분위기에 접어든 모습으로, 강남 3구의 약세흐름은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낙폭은 축소되는 양상이다.

전주 대비 가격 상승폭은 전반적으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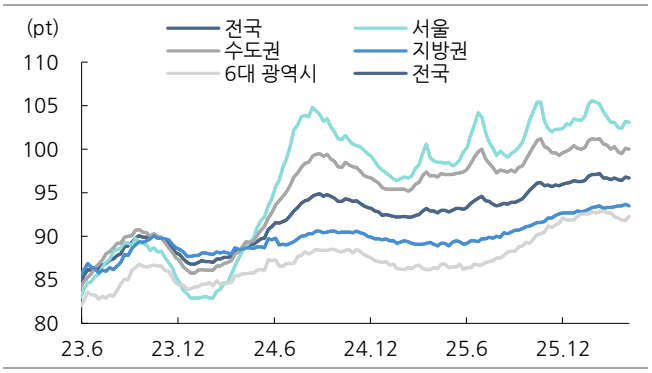
매매시장의 상승 지역은 93개를 기록하며 전주 98개 지역 수 대비 감소했다. 세종시의 등락률은 -0.04%로 전주 -0.02%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강북(+0.13%)의 경우 성북구(+0.24%), 서대문구(+0.22%), 종로구(+0.21%) 등의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강남(+0.07%) 역시 강서구(+0.25%), 구로구(+0.23%), 영등포구(+0.21%) 등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인천(0.00%)의 경우 부평구(+0.04%), 연수구(+0.04%)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보합으로 전환했다. 한편 경기권에서는 광명시(+0.38%), 동안구(+0.27%), 기흥구(+0.26%)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림 1.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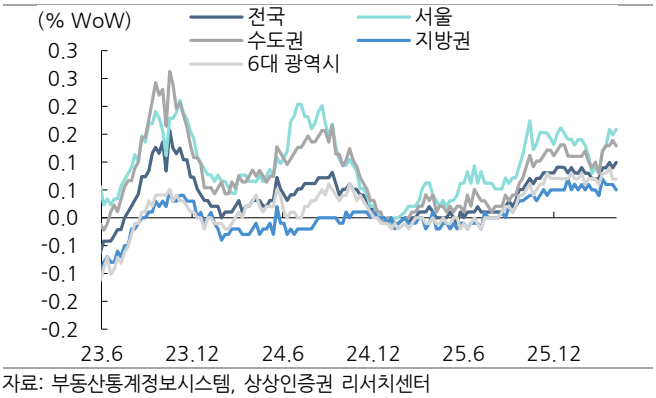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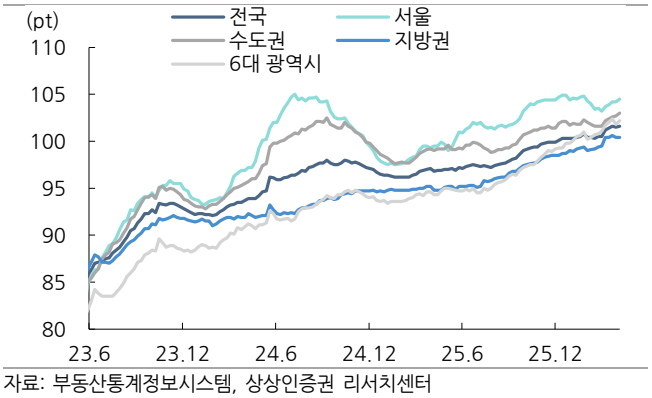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등락률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추이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신얼, 김경태, 최예찬, 강혜성)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상상인증권
sangsangin securities